

확률모델로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 승 회*

- I. 진로교육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 II. 아이들의 진로, 누가 어떻게 선택하나
- III. 진로교육의 접근에 관한 오류
- IV. 결: 사회개혁 운동으로서 진로교육

I. 진로교육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1. 「고교교육 현장」이 주는 의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현장은 우리나라에 사는 30~40대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 암기했을 내용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온나라의 지혜로운 석학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국민교육현장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감히 이 국민교육현장을 우스개로만 들어 버린 용감한 아이들이 있다. 대학입시의 전투병이 되어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주범이다.

그들은 자신을 입시전쟁터로 보낸 오늘의 교육 현실을 비웃거나 하듯이 어른들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이 소중한 글을 주저없이 우스개로 만들었다.

그들이 「고교교육현장」이라 부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배의 빛난 입시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타도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 입시의 지표로 삼는다.

영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짝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종략)」

(문학교육연구회, P.2)

점잖고 고상한 국민교육현장을 이같이 우스개로 비웃었다고 노여워할 필요는 없다. 「고교교육현장」은 어쩌면 아이들의 정직한 눈을 통해 본 우리의 정확한 교육현실일지도 모른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책임연구원

아이들이 보는 학교교육과 자신들의 삶은 「학교성적」→「대학입학」→「좋은직장」→「행복」의 지극히 단순한 공식이다. 이는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이며 또한 진로교육의 문제이다. 이러한 공식이 움직일 수 없는 법칙으로 작용하는 사회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입시의 중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정말로 파탄의 지경에 이른 우리의 교육은 입시제도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바로 잡을 수 없다. 고교졸업생의 4명중 1명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나머지는 취업의 문턱에서도 버림받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는 학력위주의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는 한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의 총체적 개혁 없이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들의 삶이 왜곡된 모습으로 그려진 「고교교육현장」이 설명해 주듯이 진로교육의 문제가 바로 교육의 문제인 것이다. 진로교육이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우리는 단순한 직업지도 또는 진학지도 만을 진로교육으로 좁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을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석민 박사가 「진로지도는 단순한 진학상담이나 취업지도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한 인간이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한 데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교육의 위기를 진로교육의 위기로 진단하고 이를 잘 나타내주는 징표를 제시할 것이다. 둘째로 아이들의 진로선택에는 실제로 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우리 사회의 진로교육에 대한 합의된 개념속에 잠재 되어있는 잘못된 가

정assumptions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진로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학교교사의 자세와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 해보고 희망적인 모습으로서 서울 양전국민학교와 거창고등학교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2. 위기의 징표들

진로교육의 위기는 초·중·고 각급학교의 여러장면에서 직·간접으로 느낄 수 있으나 특히 중등학교에서 그 증상들이 뚜렷하게 표출된다.

다음은 최근 몇년간 연구기관과 정부 그리고 메스컴에서 진단한 대표적인 위기의 징표들이다.

○ 대입 20% 위해 80% 학생, 들러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은 기껏해야 20~30% 정도인데, 그런 일부를 위해 교실 교육이 짜여져 있음. (조선일보, 89.10.3)

○ 서울대생 10명중 4명 과선택에 불만

서울대 학생생활 연구소가 '87년도 재학중인 1천6백명 대상조사-36%가 자기의 전공과목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89년도 도시에서는 29%가 모의고사 성적이나 주위의 압력때문에 평소희망하지 않던 학과에 입학했다고 응답. (서울대 학생생활 연구소, 1987, '89)

○ 서울시내 중고생 63% 진로고민

서울시 교위 교육연구원이 서울 90개 중고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63%의 학생들이 성적과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음이 밝혀짐.

(서울시 교육연구원, 1989)

○ 비진학-미취업 학생수 50만명 이상

고교졸업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

소년이나 취업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수가 '89년 현재 43만명이상이며 중졸비진학자와 중·고 중퇴자까지 합하면 50여만 이상으로 추정. (한국청소년연구원, 1989)

○ 절름발이 과학교육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28만4천7백81명의 인문계고교생중 83.5가 생물 선택, 그리고 기초과학인 화학은 2%, 물리는 1.1%만 선택.

(중앙진흥교육연구소, 1991)

○ 비선택과목 학교에서 체계적 외면

교육과정 및 학칙에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선택과목이 실시되지 않거나 예체능 과목 시간을 아예자습 시간으로 활용.

(조선일보, '89. 10. 3)

○ 공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수 전고교의 8.2%

교육부의 최근자료에 따르면, 공업계 고교생 수는 전고교의 8.2%에 불과

○ 80년대에 100개이던 공고수 10년동안 4개교 증가

교육부의 최근자료에 따르면, 80년에 100이던 공고가 10년이 지난 90년에는 겨우 4개교만 증가하는데 그침.

○ 대학생 10명중 8명 비전공분야에서 일할 수 밖에

현대사회연구소가 전국 22개 4년제 대학 '91년도 졸업생대상조사, 84.1%가 「비전공분야에서도 일하겠다」는 응답, 51.9%는 「대졸자일 필요가 없는 일자리에도 취업하겠」는 응답.

(현대사회연구소, 1991)

II. 아이들의 진로, 누가 어떻게 선택 하나

진로교육의 정의상 아이들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형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어른(부모, 교사, 사회)이 해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결속관계를 갖고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지적한 다음의 사례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소신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압력에 의해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82년 서울대 자연계열에 입학한 C모군은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휴학과 복학을 되풀이 하며 진로변경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입학 9년째인 금년에도 졸업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그는 고등학교때 문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했으나 「이과를 선택하는 것이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담임교사의 끈질긴 권유로 이과를 선택하여 서울대에 입학을 했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에 싫증을 느껴 공부를 소홀히한 그는 자연대내에서도 비인기학과에 배정되었고, 휴학을 한 뒤 고시공부등을 하며 진로를 바꿔보려 무진 애를 썼으나 결국은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지난 '87년에 복학하여 현재 대학 4년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만일 그가 문과계열의 학과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실패는 자신의 무소신과 어른들(학교와 가정)의 비교육적인 진로지도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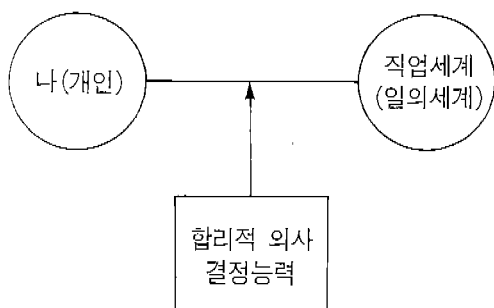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제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본인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기의 진로에 대한 합리적이고 냉철한 분석도 없이 학과를 선택한 안이한 자세는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고교생들은 아직 자기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영향을 미치는 어른들(부모, 교사, 사회)에 책임을 돌려야 마땅하다.

본장에서는 우리가 진로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누가 사실상 진로결정의 주체이며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1. 확률모형으로서 진로교육

진로교육 또는 진로지도라는 말은 흔히 개인(나)과 일의 세계(직업)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되고

진로교육의 개념



이해되어 왔다.

이 논리에 따르면 개개인이 지닌 능력·적성 요인과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다양한 직업세계 요인과 이 두요인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요인이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직업적 적격성에 관한 자기이해 활동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는 「능력요인」, 「인성 및 흥미요인」, 「환경적 요인」등이 있는데 능력요인에는 특별한 직업활동에 대한 잠재적 소질 및 가능성, 학교성적 및 건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인성 및 흥미요인에는 자아개념, 가치관, 대인관계, 특정직업 활동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흥미등이 포함되며, 환경적 요인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기대수준, 우리사회의 현재 및 미래 산업구조 그리고 노동시장의 환경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기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양한 직업세계의 탐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직업의 개인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바른 인식, 직업의 의의, 직업의 종류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기이해와 직업탐색 이후의 과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진로발달이론을 따른다는 것이다. 즉, 국민학교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 그리고 고등학교는 진로준비단계이므로 초·중·고의 발달적 특성을 진로교육프로그램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교육의 개념은 한 마디로 개인과 직업을 적절히 연결시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개인」과 「직업세계」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만 정확히 분석 할수 있으면 개인의 삶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진로교육의 개념 속에 잠재해 있다. 개인의 현상태를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의 미래의 삶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이러한 생각을 「확률모형」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 모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진로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해야할 일은 목표달성을 위한 정밀한 단계(마치 프로그램 학습처럼)들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예컨대, 16살짜리 어떤 아이가,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가 가고자하는 의대 입학과 희망 전공에 요구되는 성적,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성적의 위치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배경, 자신의 현재 성적 등등을 앞서 수집한 정보와 비교하여 성공의 확률을 계산한다. 만일 그 아이가 중간정도의 성적이라면 의사가 될 확률은 기껏해야 만분의 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 확률 모형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다. 정말로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보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 확률모형으로서의 진로교육에 담겨있는 잘못된 가정에 관한 문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누가 어떤 형식으로 아이들의 진로선택을 해 주는지 살펴보자.

2. 누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 주나

1차 세계대전중에 프랑스군이 지휘관들의 무능으로 수많은 패전을 거듭한 뒤에 민간출신

총리인 조르쥘 클레망소는 「전쟁이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장군들에게 결정을 맡겨둘 수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후에 민간정부가 전쟁수행에 관한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진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그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라는 표현이 어른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사회의 진로결정에 관한 실상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주체는 어른들(특히 부모와 교사)이라고 하겠다.

1969년에 두명의 사회학자(Cicourel & Kitsuse)가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서 의사결정의 사실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조사¹⁾해 보았는데 성인들이 사실상 아이들의 진로결정을 해준다고 한다. 그들의 모형에 의하면 학교의 교사와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결속관계를 이루어 아이들의 의사결정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학교의 카운셀러는 피상적인 사회·경제적 편견(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아이들을 분류 배치하는 등 그들의 진로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은 교사로 부터 대학진학과 전문적인 직업훈련기회를 갖도록 강력히 권유받으며 이는 부모의 강화적인 희망과 더불어 아이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하층의 아이들에게는 학교교사의 역할이 상류층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층의 아이들은 높은 성취를 보이는 진로로부터 배제되는데 그들은 교사로 부터 보이지 않는 설득을 체계적으로 받는다. 예컨대 저임금의 서비스업, 육체노동의 직업등의 진로를 택하도록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1) Cicourel, A., & Kitsuse, J. (1963). The educational decision-makers. Indianapolis: Bobbs-Merrill

유사한 맥락에서의 연구²⁾도 교사가 중산층의 아이들에게는 하류층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또한 양질의 진로지도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진로결정의 형태를 밝힌 Sprintal과 Mosher(1969)의 연구는 또다른 관점에서 진로결정의 주체가 아이들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이 연구는 다음 표에 나타난 것처럼 네 가지 범주로 진로결정 양태로 설명한다.

진로결정의 단계

단계	특 징	비율
1	• 충동적이거나 운에 맞김	31%
2	• 타인의 지시에 순응	29%
3	• 합리적 의사결정	35%
4	• 분석적 및 창의적 결정	5%

첫번째 의사결정형태는 충동이나 운에 맡기듯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우발적인 형태인데 전체아이들의 31%가 이런 충동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다. 두번째의 형태는 타인지향의 의사결정으로서 첫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형태이다. 이 두가지 의사결정의 비율은 대략 60% 정도로서 이는 3명중 2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함을 의미해준다.

이와는 달리 제 3단계의 아이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델을 택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앞 절에서 언급한 확률모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주 적은 비율(5%)의 아이들이

독특한 의사결정과정을 보이는 마지막 단계의 의사결정 유형은 합리적인 방법에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을 혼합한 의사결정 형태이다. 이 단계는 이성과 감성의 종합형으로서 모든 객관적인 정보를 신중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요소가 개재되어 있는 특징이다. 이를 창의적인 선택과정이라 부를 수 있다. 이 창의적인 과정은 3단계의 합리적 과정에 비해 결코 비-이성적인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대안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한 후에 주관적인 창의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이는 진로결정은 합리적인 수준에 멈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시사해준다.

몇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진로 결정양태는 누가 아이들의 진로를 실제로 결정하는지의 문제 즉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자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를 준다. 예컨대 제1단계(충동적, 운명적) 및 제2단계(타인순응형)의 형태는 당연히 자기 중심적인 의사 결정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런 형태의 결정 메카니즘 속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는 말할 필요도 없이 부모 및 교사와 같은 어른들이라고 단언 할 수 있다. 제3단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얼핏 보기에는 자기 결정인것 같으나 그것도 완전한 본인의 주체적인 결정인지는 의심스럽다. 그들이 의사결정의 자료로서 이용하는 정보는 누구로 부터 제공받는가? 바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이다. 객관적인 정보로서 자기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이른바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얼마든지 어른들의 보이지 않는 의도(계획)

2) Rebbert, R. & Hotchkiss, L. (1979). Career Counseling in contemporary U.S. high schools in D.C. Berliner (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Washington, D.C. :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P. 137

속에 놓일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의 연구결과는 바로 이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우리의 고등학교 현장을 들여다 보자.

고교에 입학하면 누구나 한번쯤은 600원 정도의 검사료를 내고 90분간에 걸쳐 적성검사³⁾를 받는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떨어두고서라도 이 검사조차 3년에 걸쳐 한 차례 실시되는데 불과하여 이 검사결과 나타난 개인별 적성이 대학의 학과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이를 진학지도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믿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아이들의 학과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성이나 취미보다는 개인별 성적이나 대학이름, 부모의 기대나, 과시욕 등이라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 때문에 막상 수험생들이 대입원서를 작성할 때는 담임교사의 충고보다 학부모의 강요나 학생의 고집이 이길 때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측이 이른바 명문대 진학자수를 늘리기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이나 중위권대 인기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적성과는 관계없는 예상 합격선이 낮은 명문대 비인기 학과에 지원을 강하게 권유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도 자주 보게 된다.

가족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우리사회의 경우 부모, 교사가 아이들의 진로결정에 보다 많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직은 크게 거부감을 주고있지는 않는것 같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존중하

는 미국의 경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인들의 영향이 아이들의 진로결정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어른들의 아이들의 진로결정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아이들의 진로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결정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어른들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결코 과정이 아닌 실상인 것이다.

III. 진로교육의 접근에 관련된 오류

- 원인 (Cause)→결과(Effect)의 패러다임을 기본가정으로 하는 확률모형의 진로교육은 인식론적 오류를 갖고 있다
- 진로교육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책-실천 지향이기 때문에 이론적 논의지향의 접근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1. 단일시각의 오류

우리는 모든 현상을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원인 *cause* →결과 *effect*의 패러다임을 통해 밝히려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인간과 사회의 여러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당연히 해왔다. 예컨대,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이나 교육에서의 행동과학적 접근은 자연과학적 원인→결과 인식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자연과학적 인식론은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진로교육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확률모형은 바로 원인

3) 이 검사는 각 학생의 적성을 「일반적성」(문과와 이과), 「계열변적성」(법정계 인문계, 사회계, 상경계, 공학계, 의학계), 「직업적 적성」(상업직, 일반직, 회계경영직, 판매직 등)등으로 분류해준다.

→결과의 기본 가정이 그 밑에 깔려있다. 원인→결과의 시각으로 인간의 삶의 현상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검토 해보기 위해서, 인식론의 문제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1981년에 교육심리학자 Thorndike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양적으로 존재하며,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질 뿐만아니라 양까지도 안다.⁴⁾」라는 대담한(?) 가설을 발표했다. 이는 자연과학을 그대로 사회세계의 적용해 보려는 19세기 말과 20세기초의 시대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행동 과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도그마는 자연과학적 원인→결과 인식론적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행동과학의 논리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자연과학의 연구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한 행동과학적 방법론의 특징은 보편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의 대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이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양적으로 존재한다는 슐다이크의 강한 신념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교육이나 심리학에서 심리측정이라는 용어를 보편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가정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심지어 인간의 중요한 감정인 사랑, 미움, 기쁨 등도 측정할 수 있다고주장한다.

둘째, 바람직한 연구절차는 실험조건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가정이다. 소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의한 연구의 설계는 일단 실험이 시

작된 후에는 실험이 오염되지 않고 통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험의 조건들을 동일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확실한 절차를 지닌 것만이 과학적이라는 견해를 가진 Campbell과 Stanley는 통제된 실험만이 교육 실재에 관한 여러 논쟁들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수단이며 방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세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연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흔히 연구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기 위하여 무선표집 *random sampling*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추리통계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집의 절차가 훌륭했고, 통계론적 법칙에 따라 분석이 행해진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는 표집단 뿐만 아니라 모집단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일반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러한 확률적 일반화를 통해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찾아내어 법칙화하려는 강한 열망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역할을 과학자가 하려한다.

네째, 이러한 연구는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가정이다. 정말로 미래의 일이 정확한 측정과 일반성을 향한 통제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면, 위의 예측성은 과학적 연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옛날에 점장이나 예언가가 했던 역할을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대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자들에게 내일 비가 올것인지 아닌지, 병이 나을것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학생이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등 모든 것에 관해 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예측을

4) Thorndike, E.L., & Woodworth, R.S., "The influence of improvement in one mental function upon the efficiency of other functions", *Psychological Review*, 8:1901

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자들은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의 실재를 단호하게 축소시켜 버린다. 이 길만이 그들이 신봉하는 과학적 연구의 예측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된다.

지금까지 간단히 요약해본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들은 한마디로, 진리로 통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모든 현상을 유일한 실재 *reality*로 환원하여 파악하려는 환원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 예컨대, 뉴턴역학의 원인→결과 관점이나 스키너의 S-R 패러다임은 단일실재를 가정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론적 가정은 우리의 교육에서도, 지식이란 주체 *subject*가 그에게 제시되는 객관적 사실 *object*을 강력한(?) 탐구방법(예컨대, 과학적 절차)에 의해 정확히 파악할 때 얻어질 수 있다는 교육내용관이 지금껏 암암리에 함의되어 왔다. 특히 우리의 획일적인 교육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현상을 인식할 때 정답은 오직 하나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훈련을 통해 교육받아 온 감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 인식론적 문제들을 더 깊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

진로교육의 문제를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으로 파악할 때, 아이들의 진로결정(삶의 결정)의 복잡한 현상을 그 요소들로 분해하여 파악하게 된다. 앞서 진로교육의 정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선 「개인의 요소», 「일의 세계」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요소로 분해하고 각 요소들을 또다시 작게 쪼갬다. (ex: 지능, 적성, 흥미, 인성……등등)

소위 과학적 연구라고 불리우는 실증주의적인 이러한 접근은 자료를 수집하기 이전에 이미 주요변인과 특정한 가설설정을 요구하는 가설-연역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연구의 문제를

설정한다. 즉 연구자의 추상적인 개념화를 시발점으로 문제를 설정하게 된다.

원인→결과의 관계로서 현상들의 복잡성을 단순하게 파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이러한 시도는 정책결정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며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정책지향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제한 속도를 현재의 100km/h에서 그 이상으로 올릴것인가의 문제에서,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을 신봉하지 않는 연구자라면 정책결정자에게 최고제한속도를 올리는 것이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증가는 속도뿐 아니라 이외의 여러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증가에 대한 속도제한의 효과만을 알고 싶어하는 정책결정자는 속도제한이외의 다른 요인들에는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정책결정자는 연구자가 어떤 현상을 축소 *simplified reality*시켜 설명해 주기만을 바란다.

진로교육의 문제를 원인→결과로 분석하려는 확률모형은 비유컨대 물을 산소(O)와 수소(H)로 분해하여 파악하려는 화학분해와 같다고 하겠다. 물을 분해하여 추출한 산소와 수소는 그 어느 요소도 각각으로는 물 자체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물의 구성요소로 추출된 산소와 수소는 물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사실은 연구자에게 물을 끄게하는 물의 성질을 알아내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연구자는 산소와 수소의 기계론적인 상호작용만을 밝힐 수 있을 뿐이다.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것은 어쩌면 분석 *analysis*이라기 보다는 일반화 *generalization*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을 분석하여 찾아낸 H_2O 는 대양

의 물속에서나 또는 빗방울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의 문제를 가장 작은 성분들로 쪼개고 이렇게 쪼개 조각들을 각자 편리한 방법으로 이들을 주위환경과 격리시켜 파악하려 한다면 이는 또하나의 환원주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로교육을 문제의 관점에서 증상의 진단과 처방으로 일관해온 감이 없지 않다.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을 진로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진로교육에서 단일시각의 편협한 오류는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2. 이론지향 논의의 오류

진로교육에 관한 확률모형은 본질적으로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게 된다. 특히 목표→수단의 관계로 진로교육에 접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의 목표를 가능한한 세분화해서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즉 「내용선정」「내용조직」「학습지도」「평가」등 전통적 교육과정 이론을 동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이론과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고 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진로교육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론적(과학적) 논의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진로교육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책지향 및 실천지향의 문제이지 결코 이론 지향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책 및 실천지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육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진

로교육도 이해당사자(ex: 학생, 부모, 교사)들의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철학자 Toulmin은 정책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론문제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 논의로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 그는 인간의 문제영역을 학문(과학), 예술, 공공정책으로 구분하는데 순수학문의 분야는 그 분야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일치정도가 아주 높는데 비해 예술분야나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그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합의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예컨대, 오랜 역사와 일관성을 갖고 있는 예술분야에서도 화가, 시인, 소설가들과 같은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예술과 여러 장르의 문학은 순수학문이라기보다는 기껏해야 준-학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공공정책⁵⁾분야 역시 순수학문영역과 매우 다르다. 공공정책분야에서는 목표의 합의정도가 매우 낮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상호 얽혀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의 표는 인간의 합리성 영역과 목표의 합의정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인간의 합리성과 목표의 합의정도

목표의 합의정도 합리성 영역	높음	중간	낮음
학 문	○		
예 술		○	
공공정책			○

5) Toulmin은 공공정책과 학문과의 차이를 다음의 예로 적절히 설명해준다. 만 어떤 토목공학자가 어떤 특정지역에 댐건설을 제안할지라도 정책결정자는 그 제안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공학자의 기술적 관심사항은 정책결정자가 고려해야 될 다양한 요인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틀민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3가지 종류의 오류: 제1종오류, 제2종오류, 제3종오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의 오류는 연구자 및 실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절차상의 오류로서, 수집된 증거가 추구하는 목표를 타당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 생겨난다. 방법상의 잘못으로서 연구설계가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표집의 크기가 적절치 못하다거나 또는 연구의 결과를 과도하게 일반화 한다거나 하는 연구절차 또는 증거수집절차상의 문제들은 바로 제1종오류를 만들어낸다. 둘째의 오류 역시 연구자들이나 현장 실무자들이 자주 범하는 것으로서 범주의 오류에 해당한다. 이 오류는 그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특히 개념체계)가 그 분야가 추구하는 특정 목표에 적절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현대물리학에 대한 고전물리학의 경우로서 고전물리학의 개념체계(언어)로서는 현대물리학이 추구하는 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그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오류는 그 분야에서 추구하려는 목표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 나타나는 목표자체에 대한 비판에서 볼 수 있다. 소위 교육학 분야에서 재개념주의자 *reconceptualist*로 불리우는 사람들은 교육학 분야에서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목표자체를 의심하고 비판하는데 그들의 관심을 집중한다.

위에서 살펴본 세가지 종류의 오류는, 연구자들 뿐 아니라 정책결정자 그리고 현장의 실천가들에게 중요하게 시사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과 현장 실천가들은 연구자들이 가치지향적인 정책문제를 기술적인 문(경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로 바꾸어 해결하려는 잘

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정책 문제의 성격을 갖는 교육의 많은 문제(예컨대 진로교육문제)들에서, 목표자체의 문제(제3종오류)는 제1종 오류나 제2종 오류와 같은 연구절차의 문제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듯이, 교육분야(또는 진로교육의 영역)에서 일하는 연구자(학자)나 현장실천가(교사)들은 제1종 오류 보다는 제2종 오류를 대처하는데 익숙치 않으며 더구나 제3종 오류의 문제는 거의 경험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에 관련된 우리 모두(연구자, 정책결정자, 교사)는 목표자체의 타당성의 문제 즉 제3종 오류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로교육의 문제를 단일시각의 확률모형으로 인식해 왔으나 이제는 확률모형자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필자의 주장은 바로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자체 즉 제3종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진로교육 문제는 어떤 기준에서 그 타당성이 판단될 수 있는가?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도출해낸 학문적·이론적 논리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진로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학문적·이론적 논의와 그 적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틀민의 구분이 시사해 주는 것 럼, 진로교육의 문제는 성격상 순수학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당사자(학생, 부모, 교사, 사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정책지향의 문제인 동시에 실천이 시급한 문제이다. 진로교육 문제는 이론적인 논의가 완전히 마쳐진 후에 한가롭게 실천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터 실천해야 될 즉시적

인 문제이다.

우리사회는 진로교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이해가 얽혀진 교육문제(ex: 대학입학제도)에서처럼,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와 즉각적인 실천으로 해결을 모색치 않고 선-이론적 논의와 후-실천의 오류를 범해왔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실천과 합의지향이 진로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진로교육 실천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 학자나 이론가들의 그것보다 강조됨은 당연하다. 이론의 영역에서는 타당한 논리가 중시되는데 비해 정책의 문제에는 다수의 합의가 그리고 실천의 문제에는 실행가능성이 해결의 필수요건이다. 정말로 교사들(실천의 최전선에 있는)을 제외하고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IV. 결 : 사회개혁 운동으로서 진로교육

- 아동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주는 진로교육의 문제는 「정답을 찾아 주는」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내도록 도와주는 총체적 시각의 인식이 요구된다
- 진로교육은 현실속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합의를 도출해 시급히 실천해야 될 일종의 사회개혁 운동이다

1. 총체적 안경을 쓰고 진로교육을 하자

본 논문에서 필자는 어른들(여기서 어른이란 부모, 교사, 사회를 의미함)이 원인→결과의 단

일시각의 안경을 통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어왔음을 지적하였다.

검은 색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검게 보듯이, 잘못된 안경(진로교육에 대한 확률모형)으로 진로교육을 보아왔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 전혀 다른 교육 실재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한 클리바드(Kliebard, 1972)의 설명은 진로교육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시사를 준다. 그는 세가지 종류의 안경: 생산production, 성장growth, 여행travel으로 학교교육을 설명한다. 만일 어떤 교사가 공장생산 모형으로 학교교육을 본다면 아동은 생산을 위한 「원료」가 되고 학교는 「공장」으로서 그리고 교사는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교를 온실로 비유한 성장모형을 갖게 되면 아이를 잠재가능성이 있는 식물의 「싹」으로 보게되고 교사는 그 싹을 키우는 「정원사」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행모형」으로서 교육을 보면 교사는 여행사의 「가이드」처럼 한 학생의 동료가 되어 그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삶을 안내해 준다. 위의 이런 비유는 교육에서 교사의 인식 즉 교육을 보는 자신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말로 진로교육이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단일시각의 안경이 적절한 것이냐를 가장 먼저 검토해보고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 시력을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안경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 안경은 아동의 삶을 수학공식처럼 예언하는 확률모형이 아니라 아동의 삶을 역동적이고 발달적인 관점에서 보는 총체적 시각인 것이다.

총체적 시각으로 인간을 본다는 것의 특징은

인간이 인간이외의 다른 대상들이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인간은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을 구상하고 문화를 만들며, 어떤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행위는 또한 여러 계획, 가치, 목적들에 의해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로운 세계속에 살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외의 대상들과 구분이 된다. 인간행위는 의미의 중요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를 이해함과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인간을 부분의 합으로서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전체로 이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아마 이 총체적인 관점은 II장에서 살펴본 3단계이상의 진로결정과정 즉 창의성 단계에 해당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단계의 진로결정은 개인과 진로선택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진로가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며 이런 삶의 결정이 정말로 그 자신에게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거나 만들어 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정말로 총체적 관점에서 아이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영화나 연극을 중간에 보러들어간 것과 같을 것이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무엇인가? 영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어떤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영화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영화의 첫부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화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삶에 영향을 주는 교사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2. 지금 여기서부터 실천하자

우리의 교육은 한마디로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교육이라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적성발굴이나 진정한 의미의 진로교육을 할 여유도 없고 여건도 갖추어 지지 않았다. 고교2학년에 진급해서 수학이나 과학성적이 상대적으로 나오면 이과, 국어나 암기과목의 실력이 좋으니 문과하는 식으로 구분되면 이후에 이를 바꾸기란 매우 힘들다.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진학을 원치 않거나 대학진학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다른 진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결국 대학진학하는 1명을 위해 3명이 틀러리로 되어 남보다 더큰 좌절감을 맛본다.

교육개혁 심의회가 '87년에 고교에서 진로교육체제 발전방안으로 : ○적성을 중시하는 입학체제 구축(고교별지원) ○계열선정을 위한 진로선택기간 설정(인문자연계외 계열의 다양화) ○진로선택에 적합한 학교체제 구축(인문실업고교간 전학허용, 종합고교 확대실시)등을 결의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된 방안은 없다. 대학진학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인식되는 한 어느 누구도 고교만 졸업한 후의 취업이나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로 진로교육의 문제는 이론가나 학자들

이 그 해결방안을 찾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학입시제도 같은 정책지향적인 문제가 학자들의 번뜩이는 논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최대 공약수(합의)를 도출해 내야 풀릴 수 있듯이, 진로교육문제 역시 많은 사람들의 합의와 참여가 절실하다. 예컨대, 실업계 VS, 인문계의 비율은 5:5로 한다든가, 학교교육과정에 직업지도 내용을 넣는다거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훈련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이론적인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문제다. 이런 정책지향의 문제는 결코 만장일치란 없다. 정책지향의 진로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당한 합의를 이루었는가 가 관건이다. 물론 합의 다음은 바로 실천의 문제이다.

필자의 생각으 는 우리 진로교육의 장래는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 희망적인 조짐이 서서히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몇몇 징표들, 예컨대, 「여학생의 공고진학이 늘고 있다」든지 「인문고교생중 직업학교의 인기가 높다」이라든가 「중 3학년의 30%가 공고를 희망」한다든지 하는 최근 매스컴에서 지적하는 것들은, 현재는 미미한 모습이지만, 이제 진로교육이 합의와 실천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개혁운동으로서의 진로교육의 모습이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준 「거창고등학교의 현장」과 울 개포동의 「양전국민학교」의 모습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으려 한다.

*거창고등학교 사례

◆조선일보 '89년 10월 15일자 3면에서 요약 인용

경남 거창고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학교를 눈앞에 두고 당황하게 된다. 학교라면 으레 있어야 할 교문과 담장이 없는 까닭이다. 재정이 빈약한 시골학교 서 그런것은 물론 아니다. 학생들에게 괜한 구속감과 강박감을 줄 필요가 없으며 자유롭게 배우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교문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거창고 학생들은 매년 첫눈이 내리면 수업을 전폐하고 학교농장 뒷산으로 토끼잡이를 나간다. 1년 내내 긴장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눈덮인 자연속에 맘껏 뒹굴고 소리치며 쌓인 긴장을 풀게 하려는 배려에서다.

매년 봄, 가을에 열리는 예술제, 지리산, 덕유산등 명산을 찾아 1박2일 야영식으로 가는 소풍, 학교 농장에서 농사일을 직접하게 하는 노작교육, 문학의 밤, 연극경연대회, 성탄절 불우이웃돕기, 바자……. 이들 행사는 학생들의 완전한 자율로 이루어 진다.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행사프로그램 선정, 행사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간섭하는 일은 없다. 교사들은 행사를 무사히 마치도록 지켜 볼 뿐이다.

이렇게 노는 날과 행사가 많은 거창고지만 대학진학률도 전국 어느학교에 뒤지지 않는 이른바 명문이다.

한 학년이 2백30여명 밖에 안되지만 이 학교에선 82년 13명, 83년 22명, 84년 21명, 86년 15명, 88년 10명이 서울대에 진학했다. 거창고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평균 70~80%로 서울의 어느 명문고를 무색케한다.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는 거창고의 교육이념은 간단하다. 「사람 만드는 교육을 하면 학력증진은 반드시 따라 온다. 그렇지 않고 학력

증진에만 치우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친다」는 설명이다.

하루 정규 8시간의 수업뿐 타율적인 보충수업은 하지 않는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 수학과목은 ABC 3단계로 능력별 반편성을 한다. 무조건적인 평등은 없으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실에서 수업받으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반편성때 불만을 털어 놓는 학생도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A에서 B반으로 내려가겠다고 주장하는 학생도 생긴다고 설명한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한 민주시민양성」을 교육과제로 삼는 거창고는 「거창정신」이 있다. 즉 「작은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평범한 정상인이 되라」「뜻없이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학교에는 「직업선택 10계」라는 것도 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라」「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그곳으로 가라」는 것등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거창고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 엿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양전국민학교 사례

◆중앙일보 1992년 6월 28일자 3면에서 요약 인용

교과서를 펴놓고 시험답안을 적고 있다. 얼핏 봐서 산만하기 짝이 없다. 마치 대학생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모습이 1학기말 시험을 치르는 국민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험시간만 이런 모습이 아니다. 학과 시간에도 국어사전을 펴놓고 낱말찾기 대회를 하고 식물

곤충의 조사 탐구대회를 연 다음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학습방식과 평가방식이 어느 학교와는 전혀 다른 교육을 한다. 그동안 이러한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경남 거창의 셋별국민학교, 서울의 벽없는 운현국민학교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이제 그 가능성이 공립학교로 확대 될 수 있는 예를 양전국민학교는 보여주었다.

우리 교육의 구조적 잘못은 입시를 위한 주입식 암기교육에 있다고 모두가 분석하고 있으면서도 사회현실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교육정책자들과 일선 학교교사들의 한결같은 체념이었다.

교육이란 사고력, 창의력, 비판력을 자율적으로 키우는데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역행해 왔다는 것, 또 이를 알면서도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더욱 큰 우리의 병폐였다고 볼 수 있다.

양전국민학교가 지난 4년 동안 동안 보여준 사고력·비판력·문장구성력들에 관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과 평가방식은 학부모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좋은 현상이다.

양전국교의 교육방식이 본래의 교육방식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다른 학교들이 유사한 교육방식을 실천할 때 우리 교육도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고 안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신이 속해있는 교육현장에서 교육개선을 향한 끊임없는 시도를 하는 교사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늘어날 때 우리의 교육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